

### 3. 파악시트 (마이 센텐스 시트) 교시

- ① 테마를 기입합니다. 테마의 문구는 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1. 부상시트] 또는 [2. 실례시트](코스에 따라 다름) 전체를 바라봅니다. 어느 쪽도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는 테마로 하고 있는 경험을 다시 느낍니다. 쓰이고 있는 장면이나 사항 전체를 느끼는 자세로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만큼 잠시 느낍니다. 그 감각을 몸에 안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감각으로 [이 느낌]이라고 특정합니다. 이걸로 [이 느낌]이라고 확정됩니다. [이 느낌]은 의미 있는 감각이라서 펠트센스(의미감각)라고 부릅니다.
- ③ 펠트센스 어떤 말로 표현 할 수 있을지 자문합니다. 생각나는 단어를 짧은 말로 씁니다. 형용사, 형용동사 의태어 의음어등 감각을 표현하는 말이 좋습니다. 명사, 동사, 부사를 써도 됩니다. 무언가에 비유 하는것도 좋습니다. 감각을 표현 하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많이 쓰는 것 보다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펠트센스에서 무한의 단어를 꺼낼 수 있지만 어느정도 쓰면 마지막에[...]를 붙이고 종료합니다. 이것은 전부 쓰지 못 했다라는 뜻입니다. 기입 범위 내의 여백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감각을 잘 아는 부분에 주의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아예 모르겠다는 것은 다루지 못합니다.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2,3 개의 어구에 밑줄을 긋습니다.
- ⑤ 밑줄을 그었던 어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느끼고 있는 펠트센스를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시트의[이 감각은【 】라는 감각이다] 의【 】에 씁니다.(이 문장을 임시 마이 센텐스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만드는 표현 임시문장이고 후 다시 만들 것입니다. 펠트센스를 얼마큼인지 표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임시 마이 센텐스를 만들면 펠트센스를 잘 기억 할 수 있습니다.
- ⑥ 【 】 기입한 표현중에 더욱 살피고 싶은 감각이 가장 강한 단어에, 이중밑줄을 긋습니다. 맞는 단어를 골라도 바꾸고 싶은 단어를 골라도 상관 없습니다.

\* 이 사이트에서 [펠트센스]는 [테마로 하고있는 일본어 교육 실천 경험의 펠트센스]를 말 합니다.